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·산청지사,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 개최

구정욱 기자 | 승인 2026.01.27 15:51



사진/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

(진주=국제뉴스) 구정욱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지난 22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'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현장설명회'를 개최했다.

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를 위해 개선·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안내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.

개정된 규정 중 가장 관심이 큰 사항으로는 임대인에게 수수료 2.5%~5%를 부과하던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2026년 개정안을 통해 농지소유자가 '농업인'일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도록 개정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.



사진/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

이날 장명석 지사장은 "이번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많은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농촌사회의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"고 말했다.

그러면서 "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고려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약속했다.

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/lawyer009@naver.com



구정욱 기자 lawyer009@naver.com